

변화의 갈림길에서

April, 2016

page 1 of 2

FOCUS 크리틱

변화의 갈림길에서

문성식展 3.9~4.2 두산갤러리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문성식과 강석호의 그림을 보아 왔다. 두 사람의 다른 만큼, 두 화가의 그림도 다르다. 최근 이들의 개인전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회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침 두 작가의 전시에 몸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서 몸의 한 부분인 '살과 살갗'을 가지고 그동안 미뤄 왔던 두 사람의 회화에 대한 인상을 스케치해 보여 준다. 글을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두 사람의 그림에 대한 고민들이 경각 내 고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들을 통해서 내 회화를 바라보는 것이기도 했다. 보다 깊은 이해와 논의들은 나를 넘어서는 일이다.

알곳은 시선, 알곳은 세계

문성식은 두산갤러리 개인전 〈알곳은 세계〉에서 드로잉과 회화를 모아 25점을 걸었다. 전시를 보면 알겠지만 알곳은 세계는 작가의 알곳은 시선에 의해 포착된 세계라 할 수 있다. 몸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작가에게는 살갗이 중요하다. 피부라 말하지 않고 굳이 살갗이라 한 것은, 표면과 질감을 동시에 말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의 그림이 주는 인간적인 정서 탓이기도 하다. 바로 여기서 그의 그림이 시작된다. 살갗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회화성과 누런 장판지 색 배경 뒤로 중년의 남자는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 실룩거리는 입술과 흰 새치머리, 깊게 패인 주름은 인물의 사실성을 더한다. 한국의 그림 속 인물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표정이 정형화되어 있는 점에 비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얼굴 표정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등 서양의 옛 그림에서 종종 보던 모습이다. 피카소의 〈The Weeping Woman〉 연작 또한 떠올리게 했다. 이러한 슬픔의 리얼리티는 작가가 아름다움보다는 진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심리적 리얼리티가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의 회화적 어법이 아카데미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어법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성식의 그림은 표정이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그의 드로잉이 늙음,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 다가갈 때 더 좋다고 느낀다. 이번에 전시된 드로잉 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은은하게 뻗 〈노인의 몸〉 〈남과 여〉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가 마음에 와 닿았다. 가족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는 늙은 몸을 그럴 때 선을 이용한다.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선들은 주름이 되고 혈관이 되고 몸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 늙은 몸의 곳곳에 나있는 표불표불한 털과 오그라들고 축 처진 고환은 얼마나 참된가?

그림의 선들을 하나의 불규칙한 패턴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패턴은 세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원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식 안에서는 다시 복잡한 현실의 세계로 연결되게 한다. 이러한 효과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결부된다. 또한 문성식은 감정의 리얼리티에 더욱 더 다가서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변형하거나 비율을 왜곡한다. 이것이 실제보다 더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두 긍정적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그림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되어 어색하게 보이거나 작위적인 장면이 그치고 만다.

그의 그림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의 패턴화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자. 〈숲의 내부〉는 가로 길이가 4미터가 넘는 큰 그림이다. 그는 그동안 고민해 온 회화의 문제점인 원근법을 해결하기 위해 페르시아 회화를 주의 깊게 보았다고 했다. 하이트컬렉션에서 전시한 〈숲의 내부2〉가 보다 실경의 세계에 가깝다면 〈숲의 내부〉는 동화적이거나 민화적인 세계로 변모한다. 그는 숲을 세계 전체로 인식하고 일상과 야생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죽음의 이미지를 곳곳에 그려 넣었다.

하지만 사건은 있지만 사건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어쩌면 이것은 패턴화와 단순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노인의 몸〉의 드로잉 속 불규칙한 패턴이 살갗의 표현에 있어 풍부한 효과를 빚어낸 반면, 〈숲의 내부〉 속에 나타난 일정한 패턴화와 장식성은 그가 붙잡고자 했던 사물의 표정과 감정의 리얼리티를 오히려 약화시켜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린 기괴한 모습의 초상에 대해 말하고 싶다. 〈사람, 눈물, 파리〉라는 제목의 초상화 연작 중 하나다. 작은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그렸다고 한다. 사실 중년의 남자가 우는 모습이 뭐 그리 볼품 있겠는가?

